

미 캘리포니아에 한국절 태고사 완공

2천여 사부대중 참석 2일 봉불 점안식

미국인 무량스님 9년 원력 선불교 대중화

미국 캘리포니아주 테하차피 산기슭의 한국 절 태고사(주지 무량) 대웅전에 부처님을 모셨다.

LA서 185km 떨어진 산기슭, 인디언들의 성지에 자리한 태고사(Mountain Spirit Center)는 2일(현지 시각) 9년 불사 끝에 대웅전 봉불 점안식을 가졌다.

태고사 주지 무량스님은 인사말을 통해 "승산 스님을 통해 불교를 알게 됐고 선의 세계에 대해 눈뜨게 됐다"며 "한국 불교의 선이 미국사회에서 대중화 될 수 있도록 정진하겠다"고 밝혔다.

1부 점안식 2부 법요식 3부 전통문화 공연 순으로 진행된 이날 봉불 점안식은 조계종 포교원장 도영스님을 비롯 남가주사원연합회장 현일 스님 등 20여 스님, 성정경 LA총영사 등 한인교포 1600여명과 현지인 100여명 등 2천여명의 사

부대중이 참석했다. 특히 태고사 봉불 점안식은 미국 현지 언론의 집중조명을 받았으며, 한인교포들은 샌프란시스코 라스베가스 샌디에고 등지에서 모여들어 한국 전통사찰 건립을 축하했다.

1978년 예일대 3학년 재학 중 승산스님의 법문을 듣고 83년 출가, 4년 동안 예산 수덕사와 군산 태고사에서 수행한 무량스님은 지난 92년 '미국 땅에 한국 불교의 수행 도량 만들기'와 한국 불교의 미국 현지포교'를 평생원력으로 태고사 장건불사에 나섰다. 무량 스님은 손수 트럭, 굴삭기, 기중기를 다루며, 교민들의 전폭적인 지원을 받아 대웅전과 요사채 불사를 완료했다. 또한 스님들이 수행 정진할 수 있는 관음전과 불교에 관심있는 현지인들을 위한 선방 건립을 계획하고 있다.



△미국 캘리포니아주 한국절 태고사는 2일 2천여명의 사부대중이 참석한 가운데 부처님 봉안식을 봉행했다.

태고사는 현재 매주 일요일 11시 법회를 개최한다. 법회는 천수경 독송에 관음 정진, 15분간의 참선, 그리고 법담을 나누는 마지막 순서까지 1시간 넘게 진행된다. 태고사는 또 풍력과 태양열을 이용한 전력 자급, 스님이 손수 만든 무공해

세제 사용, 지하수의 사용을 최소화하기 위한 하수도말의 재사용, 건물 주위의 나무를 살리기 위해 공사의 불편 감수 등 한국 불교의 정신을 고스란히 살려내고 있다.

김원우 기자 wkim@buddhapia.com

우리 절 우리 신도

“절살림 챙기는 것도 수행방편”

수원 용화정사 홍재분 총무

홍재분 보살(52·법명 여래성). 5일 수원 용화정사에서 만났을 때, 홍 보살은 책 한 권부터 건네줬다. 책 제목은 <서산갈매기야 내 한순합장의 뜻을 알라>. 최근 용화정사 주지 성관 스님이 펴낸 자서전이다. 받아든 순간, 오른손 없는 성관 스님이 다가왔다.

홍 보살과 용화정사의 인연은 28년 전으로 거슬러 올라간다. 평택 안중 토굴에서 정진했던 성관 스님이 도심포교에 원력을 세워 용화정사를 장건할 때부터였다. 수원 지역의

‘용화정사 오름팔’. 용화정사 신도들은 홍 보살을 이렇게 부른다. 늘 말없이 사찰의 대소사를 챙기기 때문에 붙여진 애칭이다. 전 파상을 하고 있는 남편을 도와가며 눈코 뜰 새 없이 바쁜 나날을 보내고 있는 홍 보살은 매일같이 용화정사로 ‘출근(?)’을 한다. 신도회 총무 소임을 맡아가며 정기 법회, 신인신도 상담, 법당 청소 등 온갖 갖은 일도 마다하지 않고 홍 보살은 ‘최적’ 해 낸다.

홍 보살은 가족신행으로도 칭찬이 자자하다. 남편 한동화(52) 씨는 거사불교회 활동중, 큰 아들 만용(27) 씨는 대학재학 시절 불교학 생회 부회장을, 큰 딸 연수(32) 씨는 수원시사암 연합회 사무와 수원 중부경찰서 경승실 자원 봉사활동중, 작은 딸 효숙(30) 씨는 용화정사 운전기사를 마다하지 않는 등 온 가족이 불자다. 이 같은 홍 보살의 활동은 용화정사 내에서 만 이뤄지지 않는다. 7년 전 용화정사 신도 20명으로 자은합창단을 결성, 단장을 맡고 있는 홍 보살은 매달 한번씩 수원구치소, 수원 중부경찰서 경승실을 찾아 ‘음성공양’을 하고 있

스님의 잃은 손 대신 묵묵히 대소사 챙겨

구치소 ‘음성공양’ 등 지역봉사에도 헌신적



△홍재분 총무(맨 왼쪽)와 신도회 회원들이 그릇을 닦으며 이야기꽃을 피우고 있다.

미약한 불교세에 교통사고로 한 손을 잃은 성관 스님이 적잖은 어려움을 겪게 되자, 홍 보살은 사찰 안살림은 물론 포교활동에까지 헌신적인 뒷바라지에 나섰다.

“스님은 저보고 용화정사의 산증인이라 하시더군요. 아닙니다. 좀 전에 스님이 한 손으로 합장하시는 걸 보냈죠. 전 다만 스님의 잘린 손을 대신해 왔을 뿐입니다.”

다. 이뿐만 아니다. 매년 인근 지역 독거노인, 소년소녀 가장 7백여 명을 초청, 잔치까지 벌일 정도로 역적이다.

홍 보살은 올해 또 하나의 원을 세웠다. 수원역 노숙자 돕기 행사를 펼친다는 것이다. 어려운 사람을 도와야 직성이 풀린다는 홍 보살. 분명 용화정사의 ‘오름팔’이었다.

수원=김철우 기자

광주 증심사 지역 모범사찰로 발돋움

노인복지법인 설립... 호스피스병원 건립



△증심사는 최근 지역인사들과 좌담을 갖고 복지법인설립 계획을 밝혔다.

광주 증심사(주지 일철)가 노인복지 지원법인을 설립하는 등 지역사회와 함께 하는 모범사찰로 발돋움하고 있다.

6월경 설립될 예정인 사회복지법인 '증심(가정)'은 노인 질병 검진서비스와 사회문화 교육, 독거노인 쉼 지원, 경로당

활성화 지원사업을 펼칠 예정이다. 노인 복지서비스 실시를 위해 증심사는 문화공간도 사찰 내 마련할 방침이다. 또 병든 노인들을 위한 호스피스전문병원 건립도 계획 중이다.

증심사 주지 일철스님은 "전통수행공간은 그대로 살리면서 새로운 시대에 맞는 사부대중과 함께하는 자리를 마련하는데 의미가 있다"고 밝혔다.

한편 증심사는 무등산의 꽃향기와 풍경소리를 세상에 알리는 월간<증심(證心)> 창간호를 1일 발행했다. 1200여년 역사의 향기와 문화를 품고 있는 광주 증심사가 발간한 <증심>은 무등산을 오르는 광주시민과 탐방객들에게 배포된다.

김원우기자

‘서울 옛지명 되찾기사업 자료집’ 발간

낙원·인사동 등 불교관련 40여건

질문 하나. ‘한국 불교 1번지’ 조계사가 있는 서울 종로구 견지동(堅志洞)의 동(洞) 이름은 어디서 유래했을까? 조선시대 의금부에서 재판할 때 뜻을 굳게 가지고 일을 공평하게 처리하라는 데서 나왔다가 답이다.

서울시는 서울지역의 동(洞)과 거리, 산, 하천 등 1596곳 이름의 유래와 변천 과정을 담은 <서울 옛지명 되찾기 사업 자료집>을 최근 발간했다. 불교 관련 주요 지명은 40여건이며 대부분 고승과 절 이름에서 유래한 것들이다.

고승 중에서도 이성계를 도와 조선을 세운 무학대사가 압도적이다. 동대문구 답십리(踏十里)동은 무학대사가 왕도를 정하기 위해 이 곳을 밟았다 하여 붙여진

이름이고, 성동구 하왕십리동 역시 무학대사가 한 농부에게 10리를 더 가라는 가르침을 받았기 때문에 ‘왕십리(在十里)’라는 이름이 생겼다. 선사시대 집터로 유명한 강동구 암사동(岩寺洞)은 백제 때 바위 절(岩寺)이 있었던 데서 붙은 이름이다. 강북구 미아(彌阿)동, 서대문구 봉원(奉元)동, 성북구 보문(普門)동, 은평구 불광(佛光)동 등은 같은 이름의 절에서 유래했다.

그러나 종로구 낙원(樂園)동은 원래 탑골(塔洞) 등으로 불렸으나 탑골공원이 낙원 같다고 해 일제가 자의적으로 붙인 이름이다. 조선시대 절골(寺洞)로 불렸던 인사(仁寺)동 역시 마찬가지다. 일제에 의해 왜곡된 서울시의 지명은 모두 65곳에 이른다.

권형진 기자

‘나눔의 집’ 전시·증언회 개최

일제 시대 위안부의 아픔을 겪었던 나눔의집 할머니들의 그림전시회가 일본 교토시 사찰인 ‘히가시후간지’에서 15일~4월 15일 열린다. 전시회에는 나눔의집 김순덕 故 강덕경 할머니 등이 ‘빼앗긴 순정’ ‘책임자를 처벌하라’ 등 유화 작품 20점이 선보일 예정이다. 4월 2일에는 김순덕 할머니가 일본군 위안부 실상에 대해 들려주는 ‘할머니 증언회’가 교토에서 열린다.

강유신기자

한국문화표현단 강좌 개설

사단법인 한국문화표현단(단장 최준식)은 14일부터 ‘유네스코가 보호하는 한국의 문화유산’과 ‘전통 한국문화와 예술’을 주제로 강좌를 개설한다.

14일부터 5월 16일까지 계속되는 ‘유네스코가 보호하는...’ 강좌는 매주 금요일 한국관광공사에서 ‘우리 문화유산 열 가지’ ‘종묘 강의 및 답사’ ‘종묘제례악’의 순서로 진행된다.

또 17일부터 5월 26일까지 열리는 ‘전통문화가 중

요...’ 강좌는 매주 월요일 문화일보 본관에서 ‘한국문화의 통합적 총론’ ‘우리 옛그림 읽기의 즐거움’ ‘우리 건축을 보는 눈’ 등이다.

강유신기자

구례 화엄사 강원 화재

6일 새벽 구례 화엄사 강원엔 화재가 발생, 방 한칸을 태우고 인명피해 없이 1시간 만에 진화됐다.

경찰과 소방서는 이날 스님들이 법당에서 예배하는 새벽 4시 10분쯤 불이 남 점을 감안해 정확한 원인을 조사중이다.

김원우기자



추천의말

성관스님 용화정사 주지

홍재분 보살은 28년 세월을 우리 절과 함께 해온 산증인입니다. 한결 같은 절집 뒷바라지, 흔들림이 없습니다. 보통 주부들이 사찰 일에 몰두하다 보면 가정

신도들 한마음으로 이끄는 기둥

일은 물론 개인 수행에 소홀하기 십상인데, 홍 보살은 다릅니다. 법당청소에서 합창단 지도까지, 절 안팎일을 살뜰히 챙기고 있습니다. 모든 신도 한분 한분이 귀중한 보배이지만, 이들을 한마음으로 이끄는 홍 총무야말로 우리 절의 기둥입니다.

김원우기자

『국내 명상 최면의 최고 권위자 법운선생 특별지도』



원장 법운

- 現 삼경그룹 고문
- (주)하조건설 고문으로 재직
- (주)오조코스메틱 대표이사



지도교사 박봉순

※ 저 서 ※

‘우리는 태어나기 이전부터 존재했다.’

◆ 「명상 최면 지도사」양성 과정

우주에 충만한 생명 파동 에너지와 우주의식(자연의식)의 100% 활용에 도전한다. <명상 최면 지도사>가 되면 인간의 내면에 숨어 있는 놀라운 잠재능력과 우주의식을 끌어내어 자신과 타인의 영적(靈的) 문제를 손쉽게 해결하는 영식(靈識)과 능력을 획득하게 되고 자신은 물론 타인의 영적 진화와 발전을 돕는 <영혼 명상 전문가>로 활동할 수 있습니다.

「교육내용」

- ※ 명상최면으로 하는 제령 천도- 자신의 몸속에 있는 영가나 빙의령이 영계로 떠나가는 것을 직접 눈으로 확인하게 하는 기법
- ※ 전생퇴행 명상최면- 무의식속에 기억 되어져있는 전생의 사건과 경험들을 재생시켜서 보게 하는 기법
- ※ 원격제령 명상최면- 제 3자가 명상최면에 들어 원하는 사람의 몸 속에 있는 영가를 천도하는 기법. 명상 당시자가 그 사실을 확인하고 볼 수 있음.

[특전] 동방 명상 전생연구학회에서 명상 최면 지도사 자격증 발급

- 전 문 반: 일주일 과정(참가비 150만원)
- 평생연구반: 일주일 과정이 끝난후 정기적으로 보충교육 실시 (참가비 300만원)
- 적용분야: 일반적인 최면수업외 **태아령** **조상령** **빙의령** **축생령** **구명시식** 천도 및 제령
- 적용대상: 스님, 법사, 상담가, 기공수련가(수업을 끝마치신 많은 분들이 감탄하고 있습니다)
- 특강일시: 수시접수

2002년 12월11일 부산시 사하구에서 발생한 "조카딸 유괴 살해 암매장 사건"을 단 한번의 명상최면으로 해결하다.

◆ 수업에 참가하신 많은 스님들이 영가천도 및 제령부분에서 영가와 직접 대화가 이루어져 많은 도움이 되었다고 감사의 말씀들을 전해오고 있습니다.

◆ 십 수년씩 기공 공부를 하신 분들이 수업을 끝내고 난 후 지금까지 채울 수 없었던 부분을 정리하고 완성 시킬수 있었다고 감사의 말씀을 전해오고 있습니다.

◆ 뛰어난 영매자들이 수업을 참관하고 난 뒤 자신의 보호령과(몸주신) 기타의 영적존재에 대한 확신과 신뢰를 가질 수 있었다는 감사의 말을 전해오고 있습니다.